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한 새사람

(토요일 — 저녁 집회)

메시지 9

한 새사람을 의식하는 가운데 교회생활을 실행하고,
같은 것을 말하며, 한 일을 함

성경: 골 3:10-11, 4:7-17

I.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7절까지는 한 새사람에 대한 계시와 의식을 보여 주는 실례(實例)가 나온다.

- A.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바울과 그의 일행은 모두 실지로 한 새사람의 지체들이었고, 한 새사람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 B. 편지들을 읽는 것에 관해 바울이 한 말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 사이에 어떤 차이점도 없었음을 증명한다. 그의 말은 교통과 하나와 조화와 친밀한 접촉을 암시한다 — 골 4:16.
- C. 국적과 인종과 계급의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된 한 새사람이 실지적인 방식으로 존재했다. 단지 여러 도시에 지방 교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참되고 실지적인 방식으로 한 새사람이 있었다.
- D. “어떤 지방에 있는 교회가 다른 교회들에게서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 이것은 새사람을 의식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된다.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교회는 그 교회만 의식하고 있을 뿐 새사람 전체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새사람을 해체시키고 조각조각으로 나눈다. ...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한 새사람에 대한 느낌이나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31장, 293-294쪽)

II.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각 지방의 모든 교회들은 한 새사람이다. 따라서 이 교회들은 새사람을 의식하는 가운데 교회생활을 실행해야 한다 — 엡 2:15, 21-22.

- A. 모든 교회들은 단지 각 지방에 있는 개별적인 교회들이 아니라 한 새사람이다 — 골 3:10-11, 4:15-16.
 - 1. 우리는 각각의 지방에 있는 교회를 새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보다 이 땅의 모든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한 새사람이다.
 - 2. 한 새사람은 단지 개별적인 지방이나 개별적인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속한 것이다.
- B. 한 새사람이 완전히 존재하게 될 때, 우리는 교회들 간의 차이점들이나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관할 구역이나 자치체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 고전 1:2, 4:17, 계 2:1, 7상, 22:16상.
 - 1. 그럴 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여 그리스도를 살 것이다.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계실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시게 될 것이다 — 빌 1:20-21상.
 - 2.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한다면, 자연히 우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할 것이다. 그럴 때 실지적으로 우리는 한 새사람일 것이다.

- C.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한 새사람이므로, 우리 지방의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온 땅에 있는 교회들을 고려해야 한다 — 계 22:16상, 살전 2:14, 롬 16:4, 고후 11:28.
- D. 교회들은 결국 그들 모두가 완전히 같아질 정도로 신성한 생명 안에서 전진할 것이다 — 계 1:4, 11-12, 고전 4:17, 7:17, 14:33하.
 - 1. “우리는 우리의 교만 때문에 다른 교회들과 같아지기를 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신성한 경륜에 따르면, 우리가 같을수록 우리는 더욱 영광스럽게 된다. 영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본받고 따르며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은 영광스럽다. 우리는 서로 배우고, 서로 조절되며, 서로 은혜를 받아야 한다.”(신성한 경륜, 139쪽)
 - 2. “나는 모든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똑같아 보이는 그날이 오기를 정말로 기대하며, 그날이 올 때 주님께서 돌아오실 것이라고 믿는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5-1976년, 2권, 교회—그 영의 복사판, 686쪽)
- E. 바로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며,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 이러한 이상이 우리를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구출할 것이다 — 골 1:18하, 3:10-11.
- F. 주님의 의도는 온 세상 도처에서 그분의 믿는 이들을 일으켜서 그분을 추구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추구할 때, 우리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표현되는 한 새사람임을 볼 것이다 — 빌 3:7-16, 엡 4:24.

III. 우주적인 한 새사람인 교회를 위하여, 우리 모두는 말하는 문제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 한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5절의 ‘한 새사람’을 로마서 15장 6절의 ‘한 입’과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같은 것을 말하는 것’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

- A. 한 새사람 안에는 한 입으로 같은 것을 말하는 한 인격이 있다 — 롬 15:6, 고전 1:10.
- B. 오직 한 새사람만 있고 한 새사람에게는 오직 한 인격만이 있기 때문에, 한 새사람은 한 입을 가지고 같은 것을 말한다.
- C. 과거에는 너무 많은 인격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입들이 있었다.
- D. ‘한마음 한뜻으로’와 ‘한 입으로’(롬 15:6)란 비록 많은 사람들이 있고 모두가 말하지만, 우리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한다’는 것(고전 1:10)을 의미한다.
 - 1. 교회는 오직 한 인격, 곧 그리스도만을 소유하고 있는 한 새사람이며, 이 인격이 우리가 하는 말을 통제한다. 따라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분명히 ‘같은 것’이다.
 - 2. 우리는 말하려고 할 때, 말하는 이 일에 있어서 말하는 인격이 나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을 해결해야 한다.
 - 3.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자신을 인격으로 삼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인격이 되시도록 허락해 드린다면, 이때 한 입이 있을 것이고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할 것이다.
- E. 한 새사람 안에는 오직 한 인격만 있고, 오직 이 인격만이 말할 자유를 갖는다. 주 예수님께만 말씀하실 절대적인 자유가 있으시며, 우리의 타고난 사람은 말할 자유가 조금도 없다 — 마 17:5.
- F. 비록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여러 곳에서 왔지만, 우리는 모두 한 입을 갖고 있고 같은 것을 말한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오직 한 인격만을 가진 한 새사람이기 때문이다 — 엡 2:15, 4:22-24, 3:17상, 롬 15:6, 고전 1:10.
- G.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과 생명으로 취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모두 같은 것을 말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실행에서 한 새사람일 것이다.

IV. 주님의 회복에는 저마다의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권역의 모든 동역자들은 유일한 몸, 곧 우주적인 한 새사람을 위해 동일한 한 일을 해야 한다 — 골 4:11, 고전 15:58, 16:10, 빌 2:30.

- A. “나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기 바란다. 우리는 회복을 위해 동일한 한 일을 하고 있는가? 만약 그러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조정하실 자유를 얻게 해 드려야 할 것이다.”(장로 훈련, 11권, 장로 직분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3), 189쪽)
- B. “주님의 회복 안의 그분의 움직임 안에는 다른 여러 일들이 아닌 오직 한 일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상황은 이것과 다르다. 우리는 다른 여러 일들을 갖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다. 이것은 위험한 것이다.”(189쪽)
- C.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우리는 오직 한 일, 곧 주님의 일만 해야 한다 — 고후 6:1상, 고전 3:9상, 15:58, 16:10.
 - 1. 바울과 베드로가 서로 다른 권역에서 일을 했지만, 그들은 두 일을 수행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들은 한 일만을 가졌다. 일의 권역들이 교회들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
 - 2. 일에 관하여, 신약은 지리적인 권역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은 동일한 특색을 지녀야 하기 때문에, 권역적인 특색을 갖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 D. “여러분은 어디에 가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중심과 실재와 목표를 건축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7권, 성경에 있는 신성한 계시의 고봉에 따른 삶을 사는 실제적인 길, 71쪽)
- E. “오늘날 이 땅에서 ...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 곧 새사람을 갖기를 원하신다. ... 그분은 이 땅에서 한 새사람을 얻기를 원하신다. ...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단체적인 인격으로 취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종류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새사람 안에서, 그리고 새사람과 함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 한다. 이 요구는 크고도 높다. 이렇게 할 때 새사람은 자라고 성숙하며, 우리는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를 것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7년, 3권, 한 몸, 한 영, 한 새사람, 464-465쪽)
- F. 이것이 궁극적인 교회생활, 곧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하고 그리스도를 살아 내는 우주적인 한 새사람일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이 시대가 종결되고 왕국이 도래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 엡 4:24, 빌 1:20-21상, 계 11:15.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새사람 안에는 오직 한 입만 있음

몸은 서로 지체가 되는 문제이지만, 새사람은 몸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오랜 세월 동안 로마서 15장 6절인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고 한 입으로 ...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내가 이 말씀을 이해했다고 느끼지 않았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오직 한 입만을 가질 수 있는가? 나는 그 당시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교회가 한 새사람임을 보았다. 한 사람은 몇 개의 입을 갖고 있는가? 오직 한 입을 갖고 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지체일 뿐 아니라 한 입으로 말한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요구가 있는지 아는가? 서로 지체가 되는 것만으로도 이미 제한이 충분히 많은데, 심지어 말할 때 한 입으로 말해야 한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다. 이것은 바울의 말이다. 한 새사람은 몇 개의 입을 갖고 있는가? 하

나이다. 그렇다면 누가 입인가?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입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너무 앞서간 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한 새사람에게는 오직 한 인격만 있음을 보아야 한다. 온몸에 오직 한 입이 있지만 누가 이 입을 통제하는가? 입을 통제하는 것은 바로 인격이다.

교회는 몸일 뿐 아니라 또한 한 새사람이다. 몸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삼는 것을 필요로 하지만, 새사람은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삼는 것을 필요로 한다. 여러분이 말하고 싶을 때, 또는 내가 말하고 싶을 때, 혹은 우리 중 누구든 말하고 싶을 때, 우리는 반드시 다음의 기본적인 질문을 해결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격은 누구인가?” 만약 여러분이 그 인격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입을 갖고 있다. 만약 내가 그 인격이라면, 나는 내 자신의 입을 갖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을 갖고 있고, 나는 나의 입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두 입이 있다. 각자가 개별적으로 한 인격이며, 자신의 문제들을 말할 때 우리는 많은 입을 갖게 된다. 이것이 사회이고 교파이다. 이것이 오늘날 타락한 기독교의 상태이다. 그러나 주님의 회복 안에서 교회는 몸이고 한 새사람이다. 몸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삼고, 새사람은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삼는다. 여러분이 말할 때 그 인격은 여러분이 아니고, 내가 말할 때 그 인격 역시 내가 아니다. 어느 누가 말하더라도 그 인격은 그리스도이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 결과는 오직 한 입만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이 “여러분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고”라고 말한 이유이다. 이 절은 여러 해 전까지 나를 매우 괴롭혔다. 나는 ‘어떻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는가?’ 하고 생각했다. 그것은 나에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 날 나는 이해했다. 교회는 오직 한 인격만 있는 한 새사람이며, 이 인격이 우리의 말하는 것을 통제한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것은 분명히 우리 모두가 새사람으로서 말해 내는 ‘같은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 안의 많은 설교자들과 목사들은 모두 자신의 인격을 갖고 있고, 자신의 입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일을 말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많은 입을 갖고 각자가 서로 다른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교회는 이와 같지 않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그 인격으로 삼는 한 새사람이다. 형제자매들이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자신을 인격 삼는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그 인격이 되시게 해야 한다. 여러분이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격이 되시게 하고, 나도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격이 되시게 한다. 그럴 때 결국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게 된다.

성경을 살펴보자. 욱십육 권의 신구약 성경은 사십여 명의 서로 다른 저자들이 천오백 년 내지 천육백 년의 기간에 걸쳐 여러 장소에서 기록한 것이다.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주전 1500년경에 쓰였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주후 90년 이후에 쓰였다. 그런데 그것들이 모두 한 입을 갖고 있는가? 그것들이 모두 같은 것을 말하는가? 성경 전체는 한 입을 가지고 있고 같은 것을 말한다.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사람들에게 의해 여러 장소에서 기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이제 여러분은 한 입으로 같은 것을 말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것이다. 동양에서, 서양에서, 미국에서, 독일에서, 영국에서, 일본에서,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있지만, 모두가 한 입을 가지고 있고 한 가지를 말한다. 비록 우리의 인수가 많고 여러 나라에서 왔지만, 우리 모두는 한 입을 갖고 있고 같은 것을 말한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오직 한 인격을 가진 한 새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내가 여기서 여러분과 교통하는 내용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것이다. 나는 몇 번이나 말하고 싶었지만, 속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이가 나인가, 아니면 주님이신가?’라고 자문하면서 점검해 보았다. 달리 말하면, 말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인격이 주님이신가, 아니면 나인가? 만약 그것이 나 자신이라면 문제가 있을 것이고, 주님이시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만약 내가 주님께서 인격이 되시도록 허락해 드린다면, 내가 아닌 그분이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다음 두 달 후에, 여러분이 주님께서 인격이 되시도록 허락해 드린다면, 여러분은 내가 한 말과 똑같은 말을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같은 것을 말하는 한 입이 있게 된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한 가지 가련한 상태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설교자가 자신의 것을 말하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이 이미 말한 것을 말하는 것은 수치라 여기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을 말하고,

그는 그의 것을 말한다. 때때로 어떤 이는 다른 사람이 이미 말한 것을 빌려 와서 말하기도 하는데, 은밀히 그렇게 한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미국에서 발생했었다. 십오 년 전, 주님의 회복이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에 미국에서는 ‘사람의 영’과 ‘변화’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이것들이 흔한 용어들이 되었다. 또 어떤 이들은 로마서를 연구하기 위해 우리의 자료들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연구를 끝내고 그것을 출판한 뒤에 그들은 그것들을 연구를 통해 스스로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합당치 않은 일이다.

그러나 또한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따르는 다른 상황도 있다. 내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따라 말하고 여러분도 역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말하여,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가 오직 한 입을 갖고 있고 같은 것을 말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그러한 상황이 올바른 상황이 아님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기독교 안의 상황을 원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사람을 따르는 상황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 새사람이 말하는 그러한 상황을 원한다. 오직 한 새사람이 있고, 이 한 새사람은 오직 한 인격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한 새사람은 한 입으로 말하고 같은 것을 말한다.

새사람 안에서는 우리 자신의 것을 말할 자유가 없음

새사람 안에서는 여러분 자신의 것을 말할 자유가 없다. 이것은 서로 지체가 되는 것보다 더 제한적이고 구속적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가장 제한하는 것이 말하는 문제임을 알고 있다. 만약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다면, 나는 매우 제한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다면, 나는 매우 자유롭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특히 새사람 안에서 여러분의 타고난 사람이나 나의 타고난 사람은 말할 자유가 없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그 인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새사람 안에는 오직 한 인격만 있다. 오직 이 인격만이 말할 자유가 있고, 우리의 타고난 사람은 절대적으로 말할 자유가 없다. 주님은 절대적으로 말씀하실 자유를 갖고 계시지만, 나는 절대적으로 말할 자유가 없다. 우리는 타고난 사람이 말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우리는 명확히 그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오직 한 인격만이 말해야 한다.

여러분은 로마서 15장 6절의 ‘한 입’과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을 에베소서 2장 15절의 ‘한 새사람’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처음 두 절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온 교회가 오직 한 입만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수백만 명의 지체들이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해할 것이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이 한 지방에 있는 교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한다. 한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는 반드시 한 입이 있어야 한다. 여기 타이베이 교회에는 오직 한 입만 있어야 한다. 또한 동남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도 오직 한 입만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오직 한 인격만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여러분은 너무 많은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입이 있었다. 많은 인격이 있을 때 많은 사상이 있다. 많은 사상이 있을 때 많은 의견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여기에는 오직 한 입과 한 인격만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경찰이 없고 우리 각 사람이 전적으로 자유롭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또 다른 인격이 있기 때문에 전혀 자유롭지 않다. 여러분이 막 말하려고 할 때, 어떤 것이 안에서부터 여러분을 ‘당기어’ 여러분에게 어떤 말도 하지 말라고 말한다. 여러분은 다만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여러분이 다시 말하고 싶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당기시므로 여러분은 다만 “아멘!”이라고 말한다. 만약 주님께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당기지 않으신다면, 내가 장담하는데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일 때 틀림없이 다툰 것이다.

타이베이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툼이 없다. 그 이유는 여러 해 동안 그들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격으로 취할 수 있는 은혜를 가졌기 때문이다. 말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그도 아니고, 형제들도 아니고, 자매들도 아니다. 그 대신 각 사람이 모두 “주님, 당신께서 말씀하소서!”라고 말한다.

우리가 말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반쪽의 입술만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우리는 여덟 개의 입술을 갖고 태어난 것 같다. 그러나 젊었을 때 나는 앞에서 말한 신중한 계산을 했었다.

내가 사람이 되는 것은 내게 달린 것이 아니었지만, 만약 내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성경에 따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만약 내가 성경을 따라 산다면, 나는 '묵일'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많은 때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그런가? 내 안에 계신 그 인격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 인격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 인격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뿐 아니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풍성을 먹고 받아들여서 우리의 존재 안으로 흡수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이 우리의 인격이 되시게 해야 한다.

함께 그리스도를 새사람 안의 인격으로 취함

여러분이 온 세상에 있는 기독교를 다 찾아다녀 볼지라도,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한다'라는 표현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말이 분명히 성경 안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가 새사람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 새사람은 한 인격을 필요로 하는데, 누가 이 인격인가? 바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아는가? 그것은 에베소서 3장 17절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고자 하신다면, 이것은 그분께서 거기서 인격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아닌가? 여러분이 어떤 집 안에 살면서 그 집을 여러분의 거처로 삼을 때, 여러분은 그 집의 인격이 된다. 에베소서는 다른 어떤 책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말한다.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인격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인격으로 계시고, 내 안에서 내 인격으로 계시며, 또 다른 사람 안에서 그의 인격으로 계신다는 뜻이 아니다.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이해이다. 나는 그분께서 우리 모두 안에서 한 인격으로 계신다고 말하고 싶다. 여러분 안의 인격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인격이다. 우리는 모두 오직 한 인격만 갖고 있다. 누가 이 인격인가? 이 인격은 바로 그리스도이다.

형제자매들이여,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즉 주님께서 돌아오시기 전에, 우리는 몸과 새사람을 보아야 한다. 성경의 마지막에 이를 때,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그 영과 신부가 나타난다. 그 끝에서 새사람은 한 신부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체험은 분명히 이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먼저 그것은 몸이고, 그다음은 새사람이며, 마지막으로 신부이다. 그것은 기독교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곧 믿는 이들은 한 장소에 함께 모일 것이고 주님께서 그들을 즉시 그분의 신부로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는 은혜를 받아 몸을 보아야 하고, 새사람을 보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신부를 보아야 한다.

몸은 움직임을 위한 것이고, 새사람은 생활을 위한 것임

우리는 아직도 이상에 있어서 최고의 지점에 이르지 못했다. 그것은 몸과 새사람과 신부에 관한 우리의 인식이 충분하지 않고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가 몸과 새사람에 관한 어떤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몸은 생명의 문제이고, 새사람은 인격의 문제이다. 몸은 움직임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행동을 위한 도구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한 몸 안에서였다. 이 화목은 몸의 문제이다. 과거에 우리는, 여러분이 구원 받았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했고, 내가 구원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달리 말해서, 우리는 각각 개별적으로 구원받았고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했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그릇된 관념이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분리되었던 우리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한 단체적인 도구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이 도구는 무엇인가? 이 도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한 몸 안에서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은 몸이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임을 보여 준다.

움직일 때 우리는 몸 안에서 움직인다.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나는 몸 안에서

그렇게 했다. 또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할 때 몸 안에서 그렇게 한다. 만약 내가 몸 안에 있지 않다면, 나는 말할 길이 없을 것이다. 나의 모든 행동은 몸 안에서 이루어진다. 나의 몸은 여러 행동을 위한 도구이다.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은 하나의 행동이고, 이 행동은 몸 안에서 몸에 의해 수행된다. 우리의 몸은 움직임을 위한 하나의 도구이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몸이 움직임을 필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히 건강하고 강할 수 있도록 확대되고 자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새사람은 어떠한가? 새사람은 움직임을 위한 것이 아니다. 새사람은 결정을 내리고 생활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전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살아가야 한다. 몸은 움직임을 위한 것이고, 새사람은 생활을 위한 것이다. 새사람과 관련하여 에베소서 4장 24절은 새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한다. 의와 거룩함은 우리의 생활의 상태들이다. 따라서 생활은 전적으로 새사람의 문제이다. 새사람은 생활을 위한 것인데, 우리의 생활의 팔십에서 구십 퍼센트가 결정을 내리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두 가지를 보아야 한다. 몸으로서의 교회는 움직임을 위한 것이고, 새사람으로서의 교회는 결정하여 생활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여 행동하고 일하며 책임을 짊어진다. 다른 한편으로 교회는 새사람이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하여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생활 방식을 결정한다. 그러나 그것이 몸이든 새사람이든, 일하고 움직이는 것이든 생활하고 결정하는 것이든 모든 것이 단체적이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것이 없다. 여러분은 오늘날 여러분의 생활이 새사람의 생활 곧 단체적인 생활이고, 여러분의 결정이 개인적인 결정이 아닌 단체적인 결정이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공장을 세워야 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자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결론을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 여기에 일종의 생활이 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이 새사람 안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인격이 되어 결정을 내리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새사람 안의 다른 모든 부분과 함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격으로 취하고 싶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여러분 자신을 인격으로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새사람 안에 있는 여러분의 인격으로 취하여 결정을 내릴 것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생활은 새사람의 생활일 것이다.

새사람의 생활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의(義)이고 다른 하나는 거룩함이다. 의는 하나님의 길에 따른 것이고,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성에 따른 것이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본성과 정확히 일치하고 그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길과 정확히 일치할 때, 거기에 거룩함과 의(義)가 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생활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개인적인 성화(聖化)의 생활이 아니다. 그보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은 여러분이 새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하고,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 되도록 해 드리는 생활이다. 따라서 살아 나타나게 되는 모든 것이 의(義)이고 거룩함이다. 이것은 우리의 움직임을 일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것이다. 이것이 새사람의 방면이다. 다른 한 방면은 몸이다. 몸으로서 우리는 움직인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움직인다.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이나 우리 자신의 생명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과 힘이신 그리스도에 근거한다. 더욱이 우리의 움직임은 개인적인 움직임이 아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개인주의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는 우리가 단체적인 몸이자 단체적인 새사람임을 보아야 한다. 우리의 생활이 단체적이고, 우리의 움직임이 단체적이다. 우리는 우리의 움직임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한다. 그리스도는 몸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새사람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시다. 우리는 몸 안에서 서로 지체들이고, 새사람 안에서 모두 한 입으로 같은 것을 말한다. 이것이 교회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7년, 3권, 한 몸, 한 영, 한 새사람, 442-452쪽)*